

권 두 언

회 장 장 명 옥

대한 가정학회는 여러 선배님들의 노력에 의하여 착실하게 발전하여 왔으며, 이번에 또 다시 내용이 풍부한 가정학회지를 내놓게 된 것은 대단히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회란 회원 수도 중요하지만 그의 내용이 충실한 것이 중요한 문제이며, 그의 내용의 평가는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우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발전, 생활의 근대화로의 계진은 가정학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즉 산업의 기업화에 따르는 직업의 분화와 그에 따르는 인간상의 변화,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분리되어 가는데 있어서의 가족구성의 변화는 인간육성, 발달에도 과거와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에서 오는 사회와 가정생활문제, 집단주택, 아파아트 생활, 가정일용품의 변모와 풍부한 물자의 시장 출회에서 오는 소비성의 부조리와 물지각적인 가정생활 자세로 되기쉬운 경향, 기업의 투자문제를 둘러싼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문제와, 저축문제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면이 모두 가정학에서는 선두에 서서 일해야 할 것들이라고 믿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 노력하여 가정생활 근대화를 위한 계몽, 교육에 적절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용물자 생산공장에서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필요를 파악하고 창의력과 기술을 제공하는 생산기술자로서의 공헌등은 가정학에서만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 가정학의 각 분야에 걸친 전문적 연구는 시급한 것이며, 따라서 70년대에는 대학, 대학원에서의 석사과정 뿐만 아니라, 박사과정까지를 두어 보다 근본적이며, 과학적이면서도 실증적인 연구를 하여 학회지의 호를 거듭할수록 그 내용이 더욱 충실하게 되기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회원들의 건강과 분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